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2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무용 자율성 지지, 기본 심리적 욕구 및  
동기조절간의 인과모형 검증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조 성 미

# 무용 자율성 지지, 기본 심리적 욕구 및 동기조절간의 인과모형 검증

Testing a Causal Model between Autonomy Support,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Motivational Regulation in Dance Contexts.

2012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조 성 미

# 무용 자율성 지지, 기본 심리적 욕구 및 동기조절간의 인과모형 검증

지도교수 박 준 희

이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조 성 미

## 조성미의 석시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임 지 형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미 숙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준 희    (인)

2011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표목차 .....	iii
그림목차 .....	iv
ABSTRACT .....	v
논문개요 .....	vi
<b>제1장 서 론 .....</b>	<b>1</b>
1-1. 연구의 필요성 .....	1
1-2. 연구목적 .....	4
1-3. 연구문제 .....	4
1-4. 연구의 제한점 .....	6
1-5. 용어정의 .....	7
<b>제2장 이론적 배경 .....</b>	<b>8</b>
2-1. 자율성 지지 .....	8
1) 자율성 지지의 개념 .....	8
2) 주요 타자의 자율성 지지 .....	8
2-2. 기본 심리적 욕구 .....	9
1) 기본 심리적 욕구의 개념 .....	9
2) 주요 기본 욕구 .....	10
2-3. 성취동기 .....	12
1) 자기결정적 동기의 개념 .....	12
2) 자기결정적 동기유형 .....	12

<b>제3장 연구방법</b> .....	<b>14</b>
3-1. 연구대상 .....	14
3-2. 연구도구 .....	15
3-3. 연구절차 .....	20
3-4. 자료분석 .....	21
<b>제4장 연구 결과</b> .....	<b>22</b>
4-1. 기술통계 .....	22
4-2. 상관분석 .....	25
4-3. 연구모형 검증 .....	27
<b>제5장 논의</b> .....	<b>34</b>
5-1. 개인차 .....	34
5-2. 인과효과 .....	36
<b>제6장 결론 및 제언</b> .....	<b>39</b>
6-1. 결론 .....	39
6-2. 제언 .....	40
참고문헌 .....	42
[부록] .....	45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4
표 2. 무용교사, 부모 및 동려의 자율성 지지 검사지의 주성분분석 결과 ....	16
표 3. 무용 기본 심리적 욕구 검사지의 주성분분석 결과 .....	18
표 4. 무용 동기조절 검사지의 주성분분석 결과 .....	20
표 5. 잠재변인의 기술통계량 .....	22
표 6. 학년에 따른 지각된 자율성 지지의 기술통계량과 일변량 분석의 결과 요약...	23
표 7. 학년에 따른 기본 심리적 욕구의 기술통계량과 일변량 분석의 결과 요약...	24
표 8. 전공에 따른 지각된 자율성 지지의 기술통계량과 일변량 분석의 결과 요약...	24
표 9. 전공에 따른 기본 심리적 욕구의 기술통계량과 일변량 분석의 결과 요약...	25
표 10.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	26
표 11. 연구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 .....	28
표 12. 연구모형의 모수추정 결과 .....	29
표 13. 연구모형의 직·간접 효과 .....	32



## 그림 목 차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	6
그림 2. 연구모형의 확인적 경로 .....	30

# ABSTRACT

Testing a Causal Model between Autonomy Support,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Motivational Regulation in Dance Contexts

Cho Sung Mi

Adivisor: Prof. Park Jun-hui Ph.D.

Department of Da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esting the autonomy support, three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with self-decisive motivational regulation which the students studying dance at art high school perceive from their teachers, parents and peers. For this research, 427 students- 24 boys, 403 girls-studying dance at art high school participated in the survey as subjects.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the technical statistics, main componential analysis and constative factor analysis to test the credi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ing tool used in this study. Also, for verifying the study hypothesis, unitary multi-variant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carried out. The result deducted through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dance teacher's autonomy support has a still effect on the dance majoring high school students' level of self-regulation, competence and relation desire satisfaction.

Second, dance majoring high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level for

self-regulation desire and competence desire affects the high school students' self-decisive motivational regulation level directly but relation desire satisfaction level does not have an still effect on their self-decisive motivational regulation level directly.

Third, dance teacher's autonomy support has a still effect on the self-decisive motivational regulation level directly through the satisfaction of self-regulation desire and competence desire and relation desire. parents' autonomy support has a still effect on the self-decisive motivational regulation level directly through the satisfaction of self-regulation desire and competence desire and relation desire as well. However through these three basic psychological needs, peers' autonomy support does not have an still effect on the self-decisive motivational regulation level directly or indirectly.

##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학생들이 교사, 부모, 그리고 동료로부터 지각한 자율성 지지와 세 가지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그리고 자기결정적 동기조절과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술고등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427명의 학생들(남학생=24명, 여학생 40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자료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주성분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되었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 다변량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 욕구만족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율성과 관계성 욕구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유능성 욕구만족에는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동료의 자율성 지지는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 욕구만족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율성 욕구와 유능성 욕구에 대한 만족 수준은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관계성 욕구만족 수준은 이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그리고 관계성

욕구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도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그리고 관계성 욕구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동료의 자율성 지지는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동기이다. 학습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학생들의 동기를 촉진시키거나 저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자들은 그 동안 학생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성취동기 이론들을 확립하고 이를 학습 현장에 적용해오고 있다. 이들 이론 중에서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일반 학습 영역 뿐 아니라 무용, 체육 및 스포츠 상황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동기유형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용 상황에서 이를 적용한 연구결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Deci와 Ryan(1985, 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이란 인간의 동기적 유형과 상태를 크게 내적 동기, 외적 동기, 그리고 무동기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외적 동기는 다시 자기결정성 수준에 따라 확인적 조절, 부과된 조절, 그리고 외적 조절로 구분이 된다. 여기서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 재미나 만족감 등에 의해 일어나고,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학생들이 어떤 보상과 압박과 같은 외적 수단을 통해 조절될 때 일어나며(Pelletier, Fortier, Vallerand, & Brière, 2001), 무동기는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전혀 없을 때를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동기적 상태는 자기결정적 연속성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데, 자기결정성 이론은 학생들의 동기적 상태가 내적 동기로 옮겨가면 학습활동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Reeve, 2002). 그 동안 이 이론을 학습에 적용한 연구들은 자기결정적인 동기 수준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성격 발달, 자기조절, 보편적인 심리적 욕구, 삶의 목표, 에너지와 활력, 무의식 과정,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동기, 정서, 행동과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Deci & Ryan, 2008; Hagger, Culverhouse, Chatzisarantis, & Biddle, 2003; Ntoumanis, 2001, 2002; Soenens & Vansteenkiste, 2005).

이와 같이 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 수준은 청소년들의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데,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기결정적인 동기 수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율성 지지이다(Deci & Ryan, 2002; Friedman, 2003). 지각된 자율성 지지란 교사, 부모, 동료들이 자발적인 참여, 선택의 기회, 독자적인 문제해결, 의사결정 참여, 기분 인정 등을 지지한다는 학생들의 믿음을 의미한다(Mageau & Vallerand, 2003).

실제 학습 상황에서는 교사, 부모 또는 동료들이 자율성을 지지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훨씬 더 자율적인 동기 양식을 가지고 학습활동을 한다(Black과 Deci, 2000; Reeve, 1998). 또한 자율성을 지지하는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이 통제적인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보다 더 높은 학업수행과 성취(Flink, Boggiano, Main, Barrett, & Katz, 1992), 내적동기(Deci, Nezlek, & Sheinman, 1981), 창의성(Koestner, Ryan, Bernieri, & Holt, 1984), 긍정적인 정서경험(Patrick, Skinner, & Connell, 1993)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결정적인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변인으로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의 심리적 기본욕구가 만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Deci & Ryan, 2000).

Deci와 Ryan(2000, 2002)에 의하면, 자율성은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이나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원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기를 원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가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이고, 유능성은 개인이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경험할 때 충족되는 욕구이며,

관계성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는다 고 느낄 때 충족되는 욕구이다.

특히 학생들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만족 수준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유능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세 가지 기본 욕구 중에서 가장 핵심요소이다(Ryan, 1982). 그 동안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적용한 연구들은 관계성이 유능성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와 통합적으로 내적동기와 관련이 있고, 내적동기 유지를 위해서는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만족되어야 한다(Ryan & Deci, 2000).

비록 무용 상황은 아니지만 지각된 자율성 지지,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및 자기결정적 동기 수준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자율성 지지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이 유능성과 자율성, 관계성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결과적으로 각 기본욕구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동기적 성향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tandage, Duda, & Ntoumanis, 2006). 체육에서도 코치와 부모가 자율성을 지지한다고 지각한 선수일수록 자기결정적 동기를 가지고 운동에 참여하고(Gagne, Ryan, & Bargmann, 2003), 지각된 자율성 지지가 세 가지 기본 욕구를 통해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기형, 박중길, 2009).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학생들이 주요 타자들 즉, 교사, 부모, 혹은 동료로부터 자율성을 지지받는다고 지각한 학생들일수록 높은 자기결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학습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에 대한 만족 수준에 의해서도 자기결정적인 동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교사뿐 아니라 부모와 동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박중길, 김민희, 김민정, 2010)에서, 교사와 부모, 그리고 동료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가 무용전공 학생들의 기본 심리적 욕구와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보는 일은 앞으로 무용과 학생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1-2. 연구목적

학생들의 동기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의 핵심 요소인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에 대한 심리적 기본욕구가 만족되어질 때 촉진이 된다. Ryan과 Deci(2000)에 의하면, 자율성 지지 상황(예: 선택과 이해를 촉진시키는 맥락)에 대한 지각은 자기결정적인 동기를 촉진시키지만 사회적 맥락이 통제 요소들(예: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요적인 상황)을 강조하면 자율적인 형태의 동기, 학습과 안녕감은 손상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자기결정성 이론(SDT)에 근거하여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학생들이 교사, 부모, 그리고 동료로부터 지각한 자율성 지지와 세 가지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그리고 자기결정적 동기조절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 1-3.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7가지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그림 1>은 연구문제에 따라 설정된 7개의 가설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1) 연구문제 1 : 무용교사, 부모 및 동료의 자율성 지지는 세 가지 기본욕구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직접효과)

가설 1-1.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고등학생들의 세 가지 기본욕구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고등학생들의 세 가지 기본욕구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동료들의 자율성 지지는 고등학생들의 세 가지 기본욕구만족

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문제 2 :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은 자기결정적 동기조절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직접효과)

가설 2-1. 자율성 욕구만족은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관계성 욕구만족은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유능성 욕구만족은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문제 3 : 무용교사, 부모 및 동료의 자율성 지지는 세 가지 기본 욕구만족을 매개로 하여 자기결정적 동기조절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매개효과)

가설 3-1. 무용교사, 부모 및 동료의 자율성 지지는 세 가지 기본 욕구만족을 매개로 하여 자기결정적 동기조절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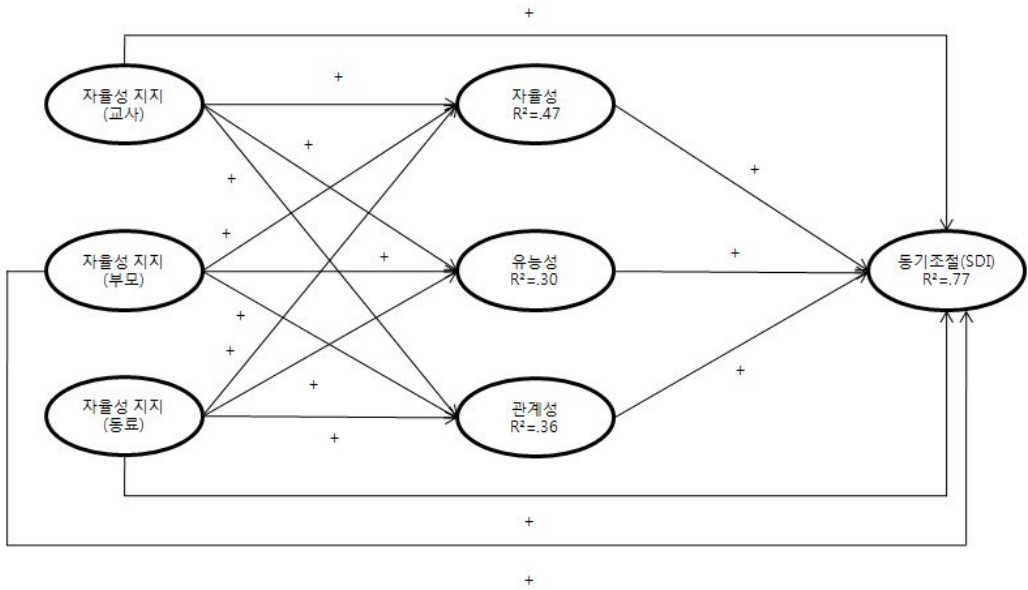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 1-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와 그 한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무용교사, 학부모,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가 세 가지의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매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그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동기조절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은 이번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광주광역시와 수도권에 소재한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이므로 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1-5.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1)자율성 지지, (2) 기본 심리적 욕구, 그리고 (3) 자기결정적 동기이다. 각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 (1) **자율성 지지 (Autonomy Support)** : 지각된 자율성 지지란 교사, 지도자, 부모, 동료들이 자발적인 참여, 선택의 기회, 독자적인 문제해결, 의사결정 참여, 기분 인정 등을 지지한다는 학생들의 믿음을 의미한다 (Mageau & Vallerand, 2003).
- (2) **기본 심리적 욕구 (Basic Psychological Needs)** : 기본 심리적 욕구란 행동과 발달을 조절하는 기능적 원리로서 안녕감과 심리적 성장뿐만 아니라 흥미 발달을 포함하여 다양한 발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Ryan, 1995). 기본 욕구 중에서 유능성은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가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욕구를 의미하고(Deci, 1998), 자율성(자기결정성)은 스스로 행동을 시작하고 자신의 자의식과 일치하여 행동을 하려는 욕구를 말하며(Deci, 1998), 관계성은 교사와 동료, 부모 등 주요 타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이들과 유대감을 느끼려는 욕구를 말한다.
- (3) **자기결정적 동기 (Self-Determinant Motivation)** : 자기결정적 동기란 기본적으로 개인의 행동조절에 대한 선행변인과 결과 규명에 관심을 두고 있다(Deci & Ryan, 2000). 자율적 조절의 경우 개인은 자신이 원해서 과제활동을 수행하지만, 통제된 조절의 경우 개인은 내외적 압력/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야만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게 된다. SDT에서 자율적, 통제된 조절은 개인이 특정한 과제활동과 행동을 시작하는 이유이자 동기이다(Deci & Ryan, 2000; Soenens & Vansteenkiste, 2005).

## 제2장 이론적 배경

### 2-1. 자율성 지지

#### 1) 자율성 지지의 개념

자기 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인간의 동기에 대한 거시이론(macrotheory)으로서 성격 발달, 자기조절, 보편적인 심리적 욕구, 삶의 목표, 에너지와 활력, 무의식 과정,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동기, 정서, 행동과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등의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현재 자기 결정성 이론 (SDT)은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율성 조절 (autonomous regulation)과 통제된 조절 (controlled regulation)로 구분된다(Deci & Ryan, 2008).

자율성은 다양한 행동을 자기의식으로 통합하고 자기 결정성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이들은 또 누구나 자신의 선택을 관리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선택권을 가지려는 타고난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 결정적인 개인이 취한 다양한 선택은 주변의 환경, 그 맥락과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평가하는 능력으로부터 이루어진다(김기형, 박중길 2009).

#### 2) 주요 타자의 자율성 지지

일반교육과 체육수업, 스포츠에서 수행된 연구는 교사와 지도자가 학생과 선수들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행동을 보여 줄 때, 학생과 선수들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한 지속성과 헌신, 즐거움, 안녕감 수준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안도희, 정재우, 2008; Amorose & Anderson-Butcher, 2007; Black & Deci, 2000; Lim &

Wang, 2009).

특히 핵심적인 자기결정성 원리 중의 하나는 자기 결정적 동기가 유능성(자신의 행동이 효율적이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려는 욕구), 자율성(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의 근원이며 우리 자신의 행동을 규제한다고 지각하려는 욕구)과 관계성(타자들과의 관계형성이나 소속감을 느끼려는 욕구)의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충족 되거나 만족 되는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Ryan & Deci, 2000, 2002).

치육상황에서 standage, Duda 와 Ntoumanis(2006)도 교사들에 의해 나타난 자율성 지지에 대한 중학생들의 지각은 유능성과 자율성, 관계성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결과적으로 각 기본 욕구는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동기적 성향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김기형, 박중길, 2009).

또한, 자기결정성 이론과 관련된 연구는 개인의 세 가지 기본욕구 만족과 동기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보상체계, 피드백, 경쟁, 대인관계 등의 수많은 사회-맥락적 사건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Deci, Koestner & Ryn, 2001; Henderlong & Lepper, 2002).

특히,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운동선수들의 지각은 선수 개개인의 동기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Horn,2002; Maegue & Vallerand, 2003).

## 2-2. 기본 심리적 욕구

### 1) 기본 심리적 욕구의 개념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인간의 행동이 자율성 (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라는 세 가지의 타고난 심리적 욕구에 의해 동기화 된다고 가정한다.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basic psychological need)를 만족시키는 개인 애, 개인 간 맥락은 신체활

동에 대한 개인의 즐거움과 행동에 자율적인 형식의 자기조절을 촉진시키게 한다(이선화, 2009).

Deci 와 Ryan (2000)은 기본적 심리욕구는 심리적 건강과 성장, 내적 동기와 주관적 만족의 경험, 최적의 기능,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운동 시작의 목적과 이유는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의 심리적 욕구를 얼마만큼 만족 시키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 2) 주요 기본 욕구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인 것으로 경험하려는 기본 욕구와 관련이 있다(deCharms, 1968). 자율성은 세 가지 욕구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행동의 개시와 조절에 선택을 경험하려는 요구이고, 환경적 사건들 보다는 개인적 선택들이 자신의 행위를 결절하게 하려는 욕구를 반영시킨다. 행동이 자기 결정적인 사람은 통제를 받는 사람보다 수행과 성취의 증진을 보이고, 높은 수준의 지각된 유능감, 자기 가치감 및 자기 존중감을 경험하며, 문제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쉬운 성공보다는 적정 도전을 선호하며, 긴장과 압박보다는 흥미와 즐거움과 같은 과제와 관련된 정서를 경험한다(정은이, 2007).

유능성은 자신이 환경과 효능적으로 상호 작용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능력을 연마하고 만족을 경험하기 위한 욕구이다(Deci, 1985).

이 유능성은 효능적 동기에 기반을 두며, 자신의 역량과 기술을 연습하고—그렇게 하는 중에 적정 도전을 찾고, 도달하려는 욕구를 반영한다. 가능성이 있는 시도와 그들 환경의 통제를 위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함축한다. 자신이 지각 할 수 있는 능력과 도전이 최적의 상태일 때 집중력이 높아지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게 되며 그러한 수행에서의 성공적 경험은 최적의 경험으로 이 상태가 즐거움이 된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지각, 즉 유능감이 중요하다(김규동, 2007).

관계성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 연결 되어 있다는 느낌과 관련성이 있다(김주환, 이윤미, 김은주, 2006). 관계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는 느낌과 관련이 있다. 주요 타자나 동료들에 있어 긍정적 관계의 느낌은 강화의 역할을 한다. 어떤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친교가 높아지고, 내재화는 자발적으로 발생한다(정은이, 2007).



## 2-3. 성취동기

### 1) 자기결정적 동기의 개념

자기결정적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환경이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인지, 행동,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Ntoumanis, 2005). 체육분야를 비롯한 교육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에 따르면, 자율성 지지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긍정적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동기수준(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에 따라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Deci & Ryan, 2000).

유기체 통합이론(Deci & Ryan, 1985)에 따르면 개인의 내·외적인 동기는 환경과 자신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내적으로(내적·통합·확인 규제) 혹은 외적으로(내재적·외재적 규제)통합시키는가에 따라 향후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으로 전제한다(Deci & Ryan, 1985). 이는 환경과 활동이 자신과 하나가 되는 과정과 떨어져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2) 자기결정적 동기유형

내적동기는 활동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신과 활동이 하나가 되는 내면화된 상태이고, 통합규제는 활동과 자신의 삶이 하나가 된 연결과정으로 삶에 있어서 활동이 중요하게 된다. 또한, 이는 의미와 가치를 포함한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내면화된 상태이다(Deci & Ryan, 2000).

확인규제는 자신이 참여한 활동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고 가치를 부여하여 개인의 삶에 있어 부분적으로나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활동으로 개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시킨다(Deci & Ryan, 2002).

외재적 규제는 외적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 개인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외재적 규제는 외재적 보상이나 제약에 순응하기 위해 행동을 한다.

자기 결정이 전혀 포함 되지 않은 타율적 행동이다. 외재적 조정에 의해 동

기화된 학습자는 부모나 교사가 제공하는 외재적 보상을 얻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한다.

외재적 동기 중에서 가장 낮은 자율성을 갖는 상태로 외적 제약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의미된다(Deci & Ryan, 1985). 그리고 무동기는 활동에 의해 무감각하거나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즉, 개인이 특정 활동을 함에 있어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무동기는 원하는 결과에 대하여 효능감이나 통제감이 결여된 상태, 즉 행동에 대한 조절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Deci & Ryan, 2000). 무동기 상태의 개인은 보상이나 유능감의 부족으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없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행동이나 결과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Ryan, 2005).

## 제3장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수도권(3개교)과 광주광역시(1개교)에 위치하고 있는 4개교로부터 450명이 참여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은 편의표집 방식을 활용하여 표집 되었고, 설문조사는 각 학교별로 전체 무용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자로 판단된 23명이 제외되었으며, 실제 자료 분석은 427명의 자료만이 활용되었다. 이 중에서 남학생은 24명(5.6%)이며, 여학생은 403명(94.4%)이었다. <표 1>에 최종 자료 분석에 활용된 고등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전공별 사례수와 백분율(%)이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 별	남학생	24	5.6
	여학생	403	94.4
학 년	1학년	140	32.8
	2학년	149	34.9
	3학년	138	32.3
전 공	발레	185	43.3
	한국무용	175	41.0
	현대무용	67	15.7

## 3-2. 연구도구

### 1) 무용 자율성 지지 검사지

박중길, 김민희 및 김민정(2009)이 예술중고등학교 무용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무용 자율성 지지 검사지가 사용되었다. 이 검사지는 무용교사, 부모 및 동료로부터 지각한 자율성 지지 수준을 각각 측정하며, 각 요인별로 12문항, 11문항, 11문항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로 반응한다. 따라서 각 요인별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자율성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24문항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주성분분석(비회전방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무용교사(KMO=.93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3382.00$ ,  $df=66$ ,  $p=.001$ ), 동료(KMO=.91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3051.83$ ,  $df=55$ ,  $p=.001$ ), 그리고 부모(KMO=.93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4005.60$ ,  $df=55$ ,  $p=.001$ )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 검사지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를 묻는 12문항의 분산비는 59.27%이며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683에서 .884까지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문항 내적 일관성 계수는  $\alpha=.937$ 이었다.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를 묻는 11문항 중에서 2문항(8번, 11번)이 삭제되었으며, 이들의 분산비는 62.86%으로 760에서 .863까지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었다. 문항 내적일관성 계수는 무용교사에서와 같이  $\alpha=.937$ 로 나타났다. 동료들의 자율성 지지를 묻는 11문항 중에서 3문항(8번, 9번, 11번)이 삭제되었으며, 이들의 분산비는 62.86%이었다.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668에서 .830까지의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문항 내적일관성 계수는  $\alpha=.933$ 이었다.

각 검사지별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최대우도방식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chi^2=154.526$ ,

$df=35$ ,  $p=.001$ ,  $Q=5.723$ ,  $RMR=.095$ ,  $GFI=.927$ ,  $TLI=.922$ ,  $CFI=.941$ ,  $RMSEA=.105$ 로 일반적 기준치를 벗어난 RMR과 RMSEA를 제외하고 다른 지수들이 일반적 기준치를 충족시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chi^2=194.210$ ,  $df=27$ ,  $p=.001$ ,  $Q=7.193$ ,  $RMR=.087$ ,  $GFI=.914$ ,  $TLI=.911$ ,  $CFI=.933$ ,  $RMSEA=.121$ 로 일반적 기준치를 벗어난 RMR과 RMSEA를 제외하고 다른 지수들이 모두 일반적 기준치를 충족시켜 수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료들의 자율성 지지는  $\chi^2=125.229$ ,  $df=20$ ,  $p=.001$ ,  $Q=6.261$ ,  $RMR=.073$ ,  $GFI=.931$ ,  $TLI=.920$ ,  $CFI=.943$ ,  $RMSEA=.111$ 로 일반적 기준치를 벗어난 RMSEA를 제외하고 다른 지수들이 모두 일반적 기준치를 충족시켜 수용할 만하였다.

표 2. 무용교사, 부모 및 동려의 자율성 지지 검사지의 주성분분석 결과

문항	무용교사	부모	동료
1	.709	.760	.701
2	.813	.801	.753
3	.683	.694	.755
4	.831	.870	.790
5	.811	.863	.838
6	.780	.803	.763
7	.713	.782	.821
8	.844	-	-
9	.684	.635	-
10	.803	.805	.791
11	.793	-	-
12	.752	-	-
고유치	7.11	6.91	4.83
분산비(%)	59.27	62.86	60.48
Cronbach's $\alpha$	.937	.937	.933

## 2) 무용 기본 심리적 욕구 검사지

박중길(2009)이 체육 상황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 욕구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체육 기본 심리적 욕구 검사지를 무용 상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3요인(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따라서 각 하위요인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세 가지 욕구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수집된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12문항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주성분분석(varimax)을 실시하였다(KMO=.88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3381.63$ ,  $df=66$ ,  $p=.001$ ). <표 3>에 제시한 것처럼, 고유치 1이상을 기준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10문항이 추출되었고, 이들의 누적 분산비는 76.20%이었다. 세 가지의 기본 욕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668에서 .702까지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들 10문항에 대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224.383$ ,  $df=32$ ,  $p=.001$ ,  $Q=7.012$ ,  $RMR=.076$ ,  $GFI=.904$ ,  $TLI=.901$ ,  $CFI=.924$ ,  $RMSEA=.119$ 로 일반적 기준치를 벗어난 RMSEA를 제외하고 모든 지수가 일반적 기준치를 충족시켜 수용할 만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표 3. 무용 기본 심리적 욕구 검사지의 주성분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관계성	3	<u>.901</u>	.218
	4	<u>.884</u>	.182
	2	<u>.870</u>	.250
	1	<u>.736</u>	.285
자율성	7	.216	<u>.853</u>
	8	.206	<u>.784</u>
	6	.309	<u>.744</u>
유능성	9	.249	.341
	11	.058	.097
	12	.185	.229
			<u>.851</u>
고유치	4.99	1.57	1.04
분산비(%)	49.98	15.75	10.46
누적 분산비(%)	49.98	65.73	76.20
Cronbach's $\alpha$	.682	.668	.702

### 3) 무용 동기조절 검사지

학생들의 내외적 동기조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천경민과 표내숙(2008)이 중학생용으로 변안한 Wilson과 Rogers(2004)의 운동행동조절 척도를 무용 상황으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3차원 5요인(무동기; 외적동기=외적 조절, 부과적 조절, 확인적 조절; 내적 조절)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로 반응한다. 무동기의 4개 문항은 역산하여 처리되었다.

수집된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19문항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주성분분석(varimax)을 실시하였다(KMO=.90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5741.9$  69,  $df=171$ ,  $p=.001$ ). <표 4>에 제시한 것처럼, 고유치 1이상을 기준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11문항(무동기, 부과적 조절, 내적 조절)이 추출되었고, 이들의 누적 분산비는 66.84%이었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관성 계

수는 .672에서 .737까지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계수를 보였다.

이들 11문항에 대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121.979$ ,  $df=41$ ,  $p=.001$ ,  $Q=2.975$ ,  $RMR=.047$ ,  $GFI=.950$ ,  $TLI=.965$ ,  $CFI=.974$ ,  $RMSEA=.068$ 로 모든 지수가 일반적 기준치를 충족시켜 수용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동기조절 수준에 주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Amorose와 Anderson-Butcher(2007)의 절차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동기조절 수준을 위한 자기결정성 지수(Self-Determinant Index)를 산출하였다. 동기조절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하위요인별로 내적 조절은 +2, 확인적 조절은 +1, 부과된 조절과 외적 조절은 -1, 무동기는 -2를 부여한 후 모든 하위요인의 점수를 합산하게 된다.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출된 하위요인별로 평균점수를 산출한 후 내적 조절은 +2, 부과된 조절은 -1, 그리고 무동기는 -2를 부여한 후 모든 하위요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지수를 구하였다.



표 4. 무용 동기조절 검사지의 주성분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2	.911	.166	-.109
무동기	.881	.193	-.167
	.874	.225	-.162
1	.842	.185	-.115
내적조절	.206	.880	-.021
	.210	.875	.035
	.312	.852	.001
	.051	.785	-.023
부과적조절	-.087	-.015	.873
	-.142	.090	.828
9	-.171	-.080	.820
고유치	4.73	2.37	1.46
분산비(%)	43.00	21.59	13.33
누적 분산비(%)	43.00	64.59	77.93
Cronbach's $\alpha$	.737	.684	.672

### 3-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절차를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주요 문헌연구와 관련자료, 그리고 필요한 검사지를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및 분석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설정하고, 이 결과에 기초하여 심리검사지 전문가 1인의 도움을 받아 기존의 검사지에 대하여 일부 문항들을 무용수업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셋째,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예술고등학교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약속한 예술고

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목적에 의거하여 본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도출된 결과에 기초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였다.

### 3-4. 자료분석

일련의 연구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SPSS 15.0과 AMOS 7.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검사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둘째,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잠재변인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학년과 전공별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일원 다변량분석(one-way MANOVA)이 실시되었다.

셋째,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넷째,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 실시되었다.

다섯째,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alpha=.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 제4장 연구 결과

### 4-1. 기술통계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6개 잠재변인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가 실시되었다. <표 5>에 각 잠재변인의 평균( $M$ )과 표준편차( $SD$ ), 왜도, 첨도가 제시되어 있다.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평균점수를 살펴보았다. 지각된 자율성 지지의 경우에 고등학생들은 무용교사와 동료들에 비해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높게 지지받는다고 보고하였다( $M=5.80$ ).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에서는 자율성 욕구가 가장 높고( $M=3.65$ ), 이어서 관계성( $M=3.54$ ), 유능성( $M=3.03$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잠재변인의 기술통계량

변인	$M$	$SD$	왜도	첨도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	4.92	1.16	-.36	-.41
부모의 자율성 지지	5.80	1.05	-.82	.07
동료의 자율성 지지	4.85	1.05	-.12	.16
관계성 욕구	3.54	.86	-.14	.02
자율성 욕구	3.65	.79	.08	-.43
유능성 욕구	3.03	.83	.28	.17
SDI(동기조절 지수)	9.69	1.63	-.01	.20

다음으로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세 가지의 기본 심리적 욕구가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전공과 학년 수준에 따라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기초 기술통계를 실시한 후 일원 다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 (1) 학년 간 차이

학년 수준에 따라 지각된 무용 자율성 지지 및 기본 심리적 욕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후 일원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과 <표 7>에 학년에 따른 각 잠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변량  $F$ 값, 유의수준( $P$ ), 에타자승( $\eta^2$ )이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학년에 따라 지각된 자율성 지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  $\Lambda=.982$ ,  $F(6,834)=1.270$ ,  $p=.269$ ,  $\eta^2=.00$ 으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교사, 부모, 그리고 동료들의 자율성 지지 수준은 학년 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6. 학년에 따른 지각된 자율성 지지의 기술통계량과 일변량 분석의 결과 요약

변인	1학년 <sup>a</sup>	2학년 <sup>b</sup>	3학년 <sup>c</sup>	$F$ (2,423)	$P$	$\eta^2$	post hoc
	$M(SD)$	$M(SD)$	$M(SD)$				
교사의 지지	4.97(1.06)	4.78(1.18)	5.03(1.22)	1.82	.162	.00	n.s
부모의 지지	5.92(.98)	5.69(1.17)	5.84(1.05)	1.69	.185	.00	n.s
동료의 지지	4.85(1.03)	4.75(1.15)	4.98(.94)	1.71	.182	.00	n.s

주) n.s.=non significant

<표 7>에서 보듯이, 학년에 따라 기본 심리적 욕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  $\Lambda=.9969$ ,  $F(6,842)=2.259$ ,  $p=.036$ ,  $\eta^2=.01$ 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변량  $F$ 값을 확인한 결과 교사, 부모, 그리고 동료들의 자율성 지지 수준은 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학년에 따른 기본 심리적 욕구의 기술통계량과 일변량 분석의 결과 요약

변인	1학년 <sup>a</sup>	2학년 <sup>b</sup>	3학년 <sup>c</sup>	<i>F</i> (2,423)	<i>P</i>	$\eta^2$	<i>post hoc</i>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관계성 욕구	3.59(.79)	3.46(.94)	3.57(.83)	1.020	.361	.00	n.s.
자율성 욕구	3.69(.78)	3.64(.86)	3.61(.73)	.366	.694	.00	n.s.
유능성 욕구	2.95(.79)	3.02(.88)	3.16(.80)	2.611	.075	.01	n.s.

## (2) 무용전공에 따른 차이

무용전공에 따라 지각된 무용 자율성 지지 및 기본 심리적 욕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후 일원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과 <표 9>에 무용전공에 따른 각 잠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변량 *F*값, 유의수준(*P*), 에타자승( $\eta^2$ )이 제시되어 있다.

<표 8>에서 보듯이, 무용전공에 따라 지각된 자율성 지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  $\Lambda=.990$ ,  $F(6,834) = .685$ ,  $p=.662$ ,  $\eta^2=.00$ 으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변량 *F*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자율성 지지 수준은 세 전공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전공에 따른 지각된 자율성 지지의 기술통계량과 일변량 분석의 결과 요약

변인	발레 <sup>a</sup>	한국무용 <sup>b</sup>	현대무용 <sup>c</sup>	<i>F</i> (2,419)	<i>P</i>	$\eta^2$	<i>post hoc</i>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교사의 지지	4.99(1.22)	4.85(1.11)	4.93(1.10)	.623	.537	.00	n.s.
부모의 지지	5.83(1.04)	5.83(1.07)	5.72(1.02)	.298	.743	.00	n.s.
동료의 지지	4.89(1.07)	4.88(1.10)	4.71(.83)	.728	.483	.00	n.s.

주) n.s.=non significant

무용전공에 따라 기본 심리적 욕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Wilks  $\Lambda=.963$ ,  $F(6,842) = 2.652$ ,  $p=.015$ ,  $\eta^2$

=.02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변량  $F$ 값을 확인한 결과, 관계성 욕구와 유능성 욕구 수준은 세 전공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율성 욕구 수준은  $F(2,423)=7.248, p=.001, \eta^2=.03$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세 전공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발레 전공자가 한국무용이나 현대무용 전공자들보다 자율성 욕구에 대한 만족 수준이 더 높았다.

표 9. 전공에 따른 기본 심리적 욕구의 기술통계량과 일변량 분석의 결과 요약

변인	발레 <sup>a</sup>	한국무용 <sup>b</sup>	현대무용 <sup>c</sup>	$F$ (2,423)	$P$	$\eta^2$	post hoc
	$M(SD)$	$M(SD)$	$M(SD)$				
관계성 욕구	3.60(.90)	3.47(.85)	3.55(.77)	1.081	.340	.00	n.s
자율성 욕구	3.81(.77)	3.53(.84)	3.51(.66)	7.248	.001	.03	a>b,c
유능성 욕구	3.13(.85)	2.95(.81)	2.99(.80)	2.111	.122	.01	n.s

따라서 이상의 다변량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학년에 따라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수준은 차이가 없고, 무용전공에 따른 지각된 자율성 지지 수준도 차이가 없지만,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중에서 자율성 만족 수준은 발레전공 고등학생들이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전공자들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 4-2. 상관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된 7개 잠재변인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상관 분석이 실시되었다.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는 .18에서 .54까지의 범위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자율성 지지와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중에서 자율성 욕구( $r=.48, p<.01$ ), 유능성 욕구( $r=.42, p<.01$ ), 관계성 욕구( $r=.48, p<.01$ )의 순으로 강한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중에서 자율성 욕구( $r=.45, p<.01$ ), 관계성 욕구( $r=.35, p<.01$ ), 유능성 욕구( $r=.30, p<.01$ )의 순으로 강한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동료의 자율성 지지는 관계성 욕구( $r=.53, p<.01$ ), 자율성 욕구( $r=.45, p<.01$ ), 유능성 욕구( $r=.45, p<.01$ )의 순으로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기본 심리적 욕구의 경우에 유능성 욕구만족이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r=.44, p<.01$ ), 다음으로 관계성 욕구( $r=.22, p<.01$ ), 유능성 욕구( $r=.18, p<.01$ )의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은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r=.41, p<.01$ ), 그 다음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 $r=.31, p<.01$ ), 동료의 자율성 지지( $r=.25, p<.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상관관계를 종합하면,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은 자율성 욕구만족 수준과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가장 강한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1. 교사의 자율성 지지	1.00						
2. 부모의 자율성 지지	.48**	1.00					
3. 동료의 자율성 지지	.56**	.53**	1.00				
4. 관계성 욕구	.42**	.35**	.53**	1.00			
5. 자율성 욕구	.48**	.45**	.45**	.54**	1.00		
6. 유능성 욕구	.43**	.30**	.45**	.40**	.52**	1.00	
7. SDI(동기조절 지수)	.41**	.31**	.25**	.22**	.44**	.18**	1.00

\*\*  $p < .01$

### 4-3.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은 (1)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를 평가하고, (2) 연구모형에 설정된 15개의 경로에 대하여 각 경로 간의 방향성과 그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며, 그리고 (3)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경로에 대한 직·간접 효과를 분해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 1) 연구모형 적합도 평가

본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적합도 지수는  $\chi^2$ 통계량, RMR(Root Means Residual), RMSEA(Root Means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r Index), TLI (Tucker-Lewis Index) 등이 활용되었다.

<표 11>에 연구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들이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듯이, 연구모형은  $\chi^2=2034.884$ ,  $df=647$ ,  $p=.001$ ,  $Q=3.145$ ,  $RMR=.113$ ,  $NFI=.893$ ,  $TLI=.906$ ,  $CFI=.917$ ,  $RMSEA=.071$ 로 일반적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RMR과 NFI 지수를 제외하고 Q값, CFI, 그리고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TLI와 RMSEA 지수가 일반적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매우 우수하지는 않지만 주요 적합도 지수가 일반적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어 수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각 경로의 모수추정치에 대한 방향성과 그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표 11. 연구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연구모형	기준	판정
$\chi^2$	2034.884	-	-
<i>df</i>	647	-	-
Q	3.145	5.0이하	채택
RMR	.113	.08이하	기각
NFI	.893	.9이상	기각
TLI	.909	.9이상	채택
CFI	.917	.9이상	채택
RMSEA(90% of CI)	.071(.068-.075)	.08이하	채택

위에서 본 연구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가 수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표 12>에서와 같이 각 경로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증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 12>에는 각 경로의 비표준화 회귀계수(Estimate), 표준오차(S.E.), 기각역(C.R.), 유의수준(P), 그리고 표준화 회귀계수(SRW)가 제시되어 있다.

<표 12>에서 보듯이, 연구모형에 설정된 15개의 경로들 중에서 12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3개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는 <표 12>에 제시된 표준화 회귀계수(SRW)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지각된 무용 자율성 지지와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사의 자율성 지지에서 자율성 욕구(Estimate=.178,  $p$ =.001,  $\beta$ =.301), 교사의 자율성 지지에서 유능성 욕구(Estimate=.182,  $p$ =.001,  $\beta$ =.249),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 지지에서 관계성 욕구(Estimate=.074,  $p$ =.030,  $\beta$ =.121)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정적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표 12. 연구모형의 모수추정 결과

경로	Estimate	S.E.	C.R.	P	SRW
교사의 자율성 지지 → 자율성 욕구	.178	.036	4.956	.000	.301
교사의 자율성 지지 → 유능성 욕구	.182	.046	3.983	.000	.249
교사의 자율성 지지 → 관계성 욕구	.074	.034	2.173	.030	.121
부모의 자율성 지지 → 자율성 욕구	.157	.037	4.213	.000	.234
부모의 자율성 지지 → 유능성 욕구	-.009	.047	-.185	.853	-.011
부모의 자율성 지지 → 관계성 욕구	.070	.036	1.956	.050	.100
동료의 자율성 지지 → 자율성 욕구	.155	.038	4.043	.000	.245
동료의 자율성 지지 → 유능성 욕구	.295	.050	5.845	.000	.378
동료의 자율성 지지 → 관계성 욕구	.308	.042	7.401	.000	.468
자율성 욕구 → 동기조절 지수(SDI)	.612	.074	8.316	.000	.634
유능성 욕구 → 동기조절 지수(SDI)	-.133	.048	-2.769	.006	-.170
관계성 욕구 → 동기조절 지수(SDI)	-.013	.055	-.233	.816	-.014
교사의 자율성 지지 → 동기조절 지수(SDI)	.208	.039	5.367	.000	.365
부모의 자율성 지지 → 동기조절 지수(SDI)	.130	.038	3.427	.000	.200
동료의 자율성 지지 → 동기조절 지수(SDI)	-.031	.045	-.680	.496	-.051

다음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에서 자율성 욕구(Estimate=.157,  $p=.001$ ,  $\beta=.234$ )와 관계성 욕구(Estimate=.070,  $p=.050$ ,  $\beta=.100$ )에 이르는 경로는 둘 다 통계적으로 정적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부모의 자율성 지지에서 유능성 욕구(Estimate=-.009,  $p=.853$ ,  $\beta=-.011$ )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의 자율성 지지에서 자율성 욕구(Estimate=.155,  $p=.000$ ,  $\beta=.245$ ), 유능성 욕구(Estimate=.295,  $p=.000$ ,  $\beta=.378$ ), 그리고 관계성 욕구(Estimate=.308,  $p=.000$ ,  $\beta=.468$ )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정적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p<.001$ ).

세 가지의 기본 심리적 욕구와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율성 욕구에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지수(Estimate=.612,  $p=.000$ ,  $\beta=.634$ )와 유능성 욕구에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지수(Estimate=-.133,  $p=.006$ ,

$\beta = -.170$ 에 이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정적 혹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관계성 욕구에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지수(Estimate=-.013,  $p=.816$ ,  $\beta = -.014$ )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

마지막으로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에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지수(Estimate =.208,  $p=.000$ ,  $\beta=.365$ )와 부모의 자율성 지지에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지수(Estimate =.130,  $p=.000$ ,  $\beta=.200$ )에 이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동료의 자율성 지지에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지수(Estimate=-.031,  $p=.496$ ,  $\beta = -.051$ )에 이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다중상관제곱 값을 살펴보았다. 이 값은 연구모형 내에서 각 내생 잠재요인 분산 몇 %가 다른 잠재요인에 의해 설명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귀분석의  $R^2$ 에 해당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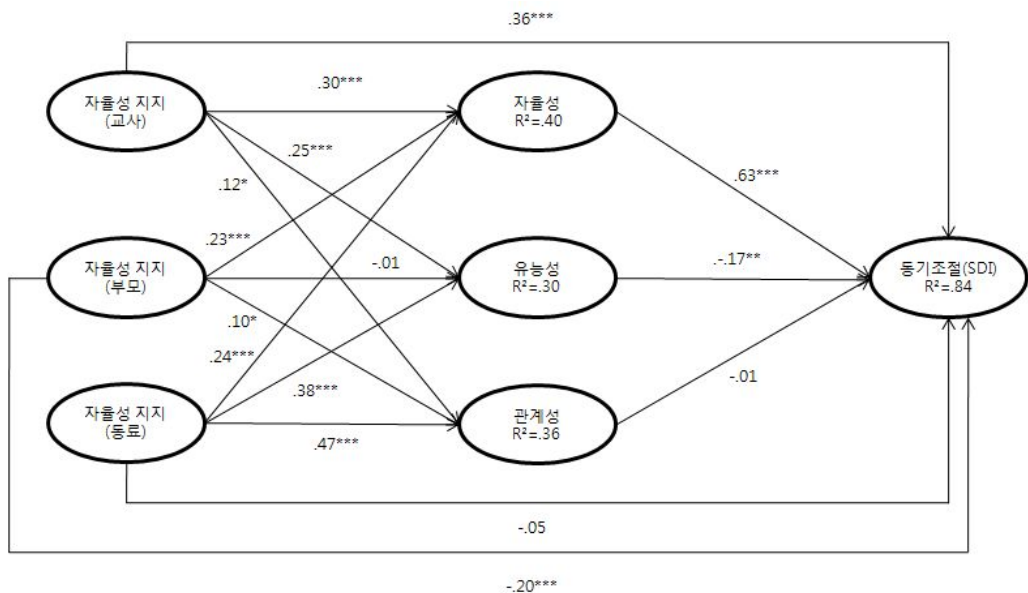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확인적 경로

<그림 2>에서 보듯이, 내생 잠재요인인 자율성 욕구의 분산 중 40%는 교사, 부모 및 동료의 긍정적 일반적 피드백에 의해 설명되고, 유능성 욕구의 30%는 무용교사와 동료의 자율성에 의해 설명된다.

또한 관계성 욕구만족 분산 중 36%는 교사, 부모 및 동료의 자율성 지지에 의해 설명되고,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지수 분산 중 84%는 무용교사, 부모 및 동료의 자율성 지지, 자율성, 유능성 욕구에 의해 설명된다.

## 2) 직·간접 효과

앞서 15개의 경로에 대한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이 검토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해하였다. <표 13>에 각 경로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에서 직접효과는 한 잠재요인이 어떤 요인을 거치지 않고 다른 잠재요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크기로서 경로계수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접효과는 한 잠재요인이 어떤 잠재요인을 거쳐 다른 잠재요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말한다.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크기를 말한다(이학식, 임지훈, 2007).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3개의 가설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율성 욕구( $\beta=.301, p<.001$ ), 유능성 욕구( $\beta=.249, p<.001$ ), 그리고 관계성 욕구( $\beta=.121, p<.05$ )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율성 욕구( $\beta=.234, p<.001$ )와 관계성 욕구( $\beta=.100, p<.05$ )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유능성 욕구( $\beta=-.011, p>.05$ )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 1-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13. 연구모형의 직·간접 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교사의 자율성 지지 → 자율성 욕구	.301***	.301***	0
교사의 자율성 지지 → 유능성 욕구	.249***	.249***	0
교사의 자율성 지지 → 관계성 욕구	.121*	.121*	0
부모의 자율성 지지 → 자율성 욕구	.234***	.234***	0
부모의 자율성 지지 → 유능성 욕구	-.011	-.011	0
부모의 자율성 지지 → 관계성 욕구	.100*	.100*	0
동료의 자율성 지지 → 자율성 욕구	.245***	.245***	0
동료의 자율성 지지 → 유능성 욕구	.378***	.378***	0
동료의 자율성 지지 → 관계성 욕구	.468***	.468***	0
자율성 욕구 → 동기조절 지수(SDI)	.634***	.634***	0
유능성 욕구 → 동기조절 지수(SDI)	-.170**	-.170**	0
관계성 욕구 → 동기조절 지수(SDI)	-.014	-.014	0
교사의 자율성 지지 → 동기조절 지수(SDI)	.512***	.365***	.147**
부모의 자율성 지지 → 동기조절 지수(SDI)	.349***	.200***	.149**
동료의 자율성 지지 → 동기조절 지수(SDI)	.034	-.051	.084

\*  $p < .05$ , \*\*  $p < .01$ , \*\*\*  $p < .001$

동료의 자율성 지지가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율성 욕구( $\beta = .245, p < .001$ ), 유능성 욕구( $\beta = .378, p < .001$ ), 그리고 관계성 욕구( $\beta = .468, p < .001$ )에 모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동료의 자율성 지지가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 1-3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3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율성 욕구만족이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634, p < .001$ ). 따라서 “자율성 욕구만족이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가설 2-1은 지지되었다.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관계성 욕구만족이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14, p > .05$ ). 따라서 “관계성 욕구만족이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가설 2-2는 기각되었다.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유능성 욕구만족이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78, p < .001$ ). 따라서 “유능성 욕구만족이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가설 2-3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이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무용 자율성 지지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 $\beta = .365, p < .001$ )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 $\beta = .147, p < .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 $\beta = .200, p < .001$ )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 $\beta = .149, p < .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료의 자율성 지지가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 $\beta = -.051, p > .05$ )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 $\beta = .084, p > .05$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용교사, 부모 및 동료의 자율성 지지가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통해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가설 3-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제5장 논의

### 5-1. 개인차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7개의 잠재변인 중에서 종속변수인 자기결정적 동기 조절 지수를 제외한 6개의 변인들이 학년과 전공에 따라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세 가지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수준은 학년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고, 지각된 자율성 지지 역시 무용전공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기본 욕구 중의 자율성 만족 수준에서만 전공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잠재변인별 차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와 논의하였다.

첫째, 무용교사, 부모 및 동료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 수준은 학년과 전공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용 영역에서 보고된 선행연구의 결과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렵지만, 박중길 등(2010)의 연구에서는 학교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박중길 등(2010)은 무용교사, 부모, 그리고 동료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 수준은 무용을 전공하는 중학생이 고등학생과 비교하여 교사, 부모, 동료들에게 자율성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하면서 고등학생에 비해 나이 어린 학생일수록 주요 타인의 자율성 지지를 더 민감하게 지각할 수 있다고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Reeve(1998)에 의하면, 지각된 자율성 지지의 수준은 문화(예: 집단주의 vs 개인주의), 주어진 맥락(예: 학습 상황, 과제내용 등), 성격,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Chirkov와 Ryan(2001)은 교사와 부모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 낮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Hagger 등(2007)도 부모와 동료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 수준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에스토니아 학생들이 영국과 헝가리

학생들에 비해 더 높지만 교사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는 세 국가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본다면, 주요 타자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 수준은 동일 학년 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학습 상황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수준은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자율성 욕구만이 전공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발레전공 학생들이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집단에 비해 자율성 욕구에 대한 만족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물론 이 결과가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Ryan과 Deci(2002)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인간에게 보편적이지만 각각의 중요성은 문화, 환경, 연령, 성별, 관계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Elliot, Kim과 Kasser(2002)는 국내 대학생이 관계성, 자존감, 자율성, 쾌락추구, 유능성, 미국 대학생은 자존감,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쾌락추구 순으로 욕구의 중요성이 문화에 따라 다르고 각 욕구가 정서경험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김아영과 이명희(2008)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수준이 중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없지만,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200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율성이 유의하게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관계성이 더 높아 여성의 관계 지향적 욕구가 높다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천경민과 표내숙(2008)은 청소년 운동 참가자들 중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모두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집단 간에 자율성 욕구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들 욕구는 주변의 환경, 문화,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되어 무용교사는 학생들이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

## 5-2. 인과효과

본 연구에서 지각된 자율성 지지, 기본 심리적 욕구 및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과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무용교사와 동료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가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과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지만,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유능성 욕구를 제외한 자율성과 관계성 욕구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수이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중에서 관계성을 제외하고 자율성과 유능성 욕구만족이 이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교사, 부모 및 동료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선행연구는 보고된바가 없지만, 무용과 유사한 스포츠와 체육수업 상황에서 수행된 일부 연구들은 지각된 자율성 지지가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와 강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령, Standage, Duda와 Ntoumanis(2006)는 체육교사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 수준은 중학생들의 유능성과 자율성, 관계성 욕구만족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이들 기본욕구는 중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동기적 성향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Blanchard와 Vallerand(1996)도 농구선수들이 코치로부터 자율성을 지지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율성 욕구에 대한 만족 수준이 더 높고, Mageau와 Vallerand(2003)은 코치가 자율성을 지지하는 행동을 보일수록 선수들의 세 가지 기본 욕구만족 수준이 촉진되어 연습에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최근에 국내 스포츠 상황에서 대학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김기형과

박중길(2009)의 연구에서도 코치의 자율성 지지가 관계성 욕구( $\beta=.54$ )와 가장 강하게 관련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자율성( $\beta=.27$ )과 유능성( $\beta=.20$ ) 순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Amorose와 Anderson-Butcher(2007)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자율성 지지가 자율성( $\beta=.81$ ), 관계성( $\beta=.51$ ), 유능성( $\beta=.22$ ) 순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세 가지 기본 욕구 중에서 자율성 욕구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고, 동료의 자율성 지지는 관계성 욕구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특히 학생들의 자율성 욕구만족은 자율성 지지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이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대한 지각된 자율성 지지의 효과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무용교사와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그리고 관계성 욕구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동료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는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이 결과 역시 동일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본 결과는 교사나 지도자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가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김기형과 박중길(2009)의 연구에서는 대학 운동선수들이 코치들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동기적 성향간의 관계가 유능성, 자율성, 그리고 관계성의 욕구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연구결과마다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의 효과 크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Amorose와 Anderson-Butcher(2007)의 연구

에서는 세 가지 기본욕구들을 통한 지각된 자율성 지지의 간접효과가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김기형과 박중길(2009)의 연구에서는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순으로 차이가 나타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  
료율성의 간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직·간접효과를 종합하면, 교사, 부모 및 동료들이 자율성을 지지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세 가지 기본욕구 만족 수준이 다르고, 그로 인해 이들 세 가지 기본욕구는 지각된 자율성 지지가 자기결정적 동기 조절 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특히 무용교사와 부모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줄 때, 학생들은 이들 세 가지의 기본욕구에 대한 만족 수준이 향상되어 자발적으로 학습활동에 재미와 흥미 등의 내적동기를 가지고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 제6장 결론 및 제언

### 6-1. 결론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SDT)에 근거하여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학생들이 교사, 부모, 그리고 동료로부터 지각한 자율성 지지와 세 가지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그리고 자기결정적 동기조절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4개 예술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427명의 무용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기술통계, 일원 다변량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이 실시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 욕구만족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율성과 관계성 욕구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유능성 욕구만족에는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동료의 자율성 지지는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 욕구만족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율성 욕구와 유능성 욕구에 대한 만족 수준은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관계성 욕구만족 수준은 이들의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무용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그리고 관계성 욕구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도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그리고 관계성 욕구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동료의 자율성 지지는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자기결정적 동기조절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적인 동기조절 수준이 무용교사, 학부모,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 여부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에 대한 만족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점에서 특히 무용교사는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성을 지지하고, 이들의 세 가지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6-2. 제언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 관점에서 국내 처음으로 자율성 지지, 기본 심리적 욕구, 그리고 자기결정적 동기와의 관계를 무용 상황에서 규명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자기결정성 이론 내에서 관련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한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 이를 적용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후속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무용교사, 부모, 동료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는 학생들의 가장 자율적인 형식의 동기인 내적 조절을 정적으로 강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주요 타자들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가 학생들의 인지, 정서,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율성 지지와 행동조절 및 수업/연습 의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것도 앞으로 무용전공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예측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용 자율성 지지 검사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요 타자들로부터 지각된 자율성 지지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연구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무용전공 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율성 지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다면, 무용전공 학생들이 무용교사를 포함하여 부모와 동료 등의 자율성 지지가 그들의 동기적 성향에 어떻게, 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형, 박중길(2009). 대학 운동선수의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기본육구 및 동기적 성향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3), 33-48.
- 김아영, 이명희(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 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 박중길(2009). 체육수업의 기본심리적욕구 검사지의 교차타당화. *한국스포츠 심리학회지*, 20(3), 167-187.
- 박중길, 김민희, 김민정(2010). 무용 자율성 지지 검사지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체육학회지*, 49(3), 231-254.
- 이학식, 임지훈(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6.0. 서울: 학지사.
- 천경민, 표내숙(2008). 청소년의 운동에 대한 기본적 심리욕구와 행동규제를 통한 운동행동 예측.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3), 33-44.
- Amorose, A. J., & Anderson-Boucher, D. (2007). Autonomy-supportive coaching and self-determined motivation in high school and college athletes: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 654-670.
- Black, A. E., & Deci, E. L. (2000). The effects of instructors' autonomy support and students' autonomous motivation on learning organic chemistry. *Science Education*, 84, 740-756.
- Blanchard, C., & Vallerand, R. J. (1996). *Perceptions of competence, autonomy, and relatedness as psychological mediators of the social factors-contextual motivation relationship*.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Quebec at Montreal, Canada.

- Gagne, M., Ryan, R. M., & Bargmann, K. (2003). Autonomy support and need satisfaction in the motivation and well-being of gymnastic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5*, 372-389.
- Hagger, M. S., Culverhouse, T., Chatzisarantis, N. L. D., Biddle, S. J. H. (2003). The processes by which perceived autonomy support in physical education promotes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intentions and behavior: A trans-contextual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4), 784-795.
- Hagger, M. S., Chatzisarantis, N. L. D., Hein, V., Pihu, M., Soos, I., & Karsai, I. (2007). The perceived autonomy support scale for exercise settings (PASSSES): Development, validity, and cross-cultural invariance in young peopl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 632- 653.
- Koestner, R., Ryan, R. M., Bernieri, F., & Holt, K. (1984). Setting limits on children's behavior: The differential effects of controlling versus informational styles on in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52*, 233- 248.
- Mageau, G. A., & Vallerand, R. J. (2003). The coach- athlete relationship: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Sport Sciences, 21*, 883-904.
- Ntoumanis, N. (2001). A self-determination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225- 242.
- Ntoumanis, N. (2002). Motivational clusters in a sample of British physical education class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3*, 177-194.
- Patrick, B. C., Skinner, E. A., & Connell, J. P. (1993). What motivates children's behavior and emotion? Joint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 and autonomy in the academic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781-791.
- Pelletier, L. G., Fortier, M. S., Vallerand, R. J., & Brière, N. M. (2001). Associations among perceived autonomy support, forms of self-regulation, and persistence: A prospective study. *Motivation and Emotion*, *25*, 279-306.
- Reeve, J. (1998). Autonomy support as an interpersonal motivating style: is it teachabl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3*, 312-330.
- Reeve, J.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In E. L. Deci & R. M. Ryan (Eds.), *Self-determination theory applied to educational settings* (pp. 183-203). Rochester, NY: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an, R. M. (1982). Control and information in the intrapersonal sphere: An extension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450- 461.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397-427.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 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 being. *American Psychologists*, *55*, 68-78.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5). Antecedents and outcomes of self-determination in three life domains: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589-604.

### 설문조사 안내문

안녕하세요?

본 조사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는 여러분이 자신의 무용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목표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평소 무용을 하면서 실제로 느끼고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은 보다 바람직한 무용 연습환경을 개선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9.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용과  
조 성 미

※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1. 학 년 : ① 1학년 \_\_\_\_ ② 2학년 \_\_\_\_ ③ 3학년 \_\_\_\_
2. 성 별 : ① 남 \_\_\_\_ ② 여 \_\_\_\_
3. 전 공 : ① 발레 \_\_\_\_ ② 한국무용 \_\_\_\_ ③ 현대무용 \_\_\_\_

☞ 위의 질문에 응답을 모두 하셨다면, 지금부터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자율성 지지에 대한 질문

- 다음은 최근 3개월 동안 학교 무용 선생님, 무용친구,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의 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자율성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나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질문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무용교사, 동료, 부모님에 대하여 각각 응답해야 합니다.)

[질문_1] 나의 무용 선생님께서 받는 자율성 지지 수준은?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나는 전공 선생님이 열심히 무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다양한 선택권과 기회를 준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나는 전공 선생님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전공 선생님은 나의 무용 능력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전공 선생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전공 선생님은 나의 무용(예: 학습과정, 작품연습, 진로 등)에 대해 관심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전공 선생님은 나의 춤추는 모습을 볼 때면,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무용에 대해서 전공 선생님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무용 선생님은 내가 열심히 무용을 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무용 선생님은 내가 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면 잘 대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무용 선생님은 나의 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1. 나는 무용에 관한 나의 경험을 전공 선생님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나는 나의 무용에 대한 전공 선생님의 의견을 믿고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질문_2] 학교 무용 친구들에게 받는 자율성 지지 수준은?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이 열심히 무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다양한 선택권과 기회를 준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친구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의 친구들은 나의 무용 능력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의 친구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의 친구들은 나의 무용(예: 학습과정, 작품연습, 진로 등)에 대해 관심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의 친구들은 나의 춤추는 모습을 볼 때면,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무용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의 친구들은 내가 열심히 무용을 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의 친구들은 내가 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면 잘 대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의 친구들은 나의 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무용에 관한 나의 경험을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나의 무용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믿고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질문_3] 나의 부모님에게 받는 자율성 지지 수준은?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나는 부모님이 열심히 무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다양한 선택권과 기회를 준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부모님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의 부모님은 나의 무용 능력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의 부모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의 부모님은 나의 무용(예: 학습과정, 작품연습, 진로 등)에 대해 관심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의 부모님은 나의 춤추는 모습을 볼 때면,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무용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의 부모님은 내가 열심히 무용을 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의 부모님은 내가 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면 잘 대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의 부모님은 나의 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무용에 관한 나의 경험을 부모님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나의 무용에 대한 부모님의 의견을 믿고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무용 기본욕구에 대한 질문

▣ 다음은 정규 무용시간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무용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나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질문] 무용시간에 나는 _____.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적당히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함께 무용을 할 때 매우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과제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과제활동 시 친구들(파트너)과 편안하게 의견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4. 과제활동 시 친구들(파트너)에게 많은 관심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좋아하는 과제활동은 나의 흥미와 매우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무용수업에 참여하는 나의 행동은 내가 좋아하는 동작을 할 때의 행동과 똑같다.	①	②	③	④	⑤
7. 무용수업에 참여하는 나의 행동은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과제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선택할 기회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과제활동 시 내가 세운 목표를 빠르게 도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매우 효과적으로 과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친구들에 비해 내 무용 실력은 꽤 뛰어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에게 요구되는 동작이나 테크닉을 잘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무용수업 행동조절에 대한 질문

▣ 다음은 무용수업시간에 여러분의 행동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질문] 무용시간에 _____.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무용수업은 시간낭비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요즘 내가 무용수업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3. 요즘 내가 왜 무용을 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4. 무용수업의 좋은 점을 느끼지 못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주위 사람들이 무용을 잘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친구나 가족, 또는 선생님이 무용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용을 열심히 안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용을 강요하기 때문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무용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창피한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무용을 하지 않으면 꼭 패배자 같은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무용이 가진 장점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무용이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실력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춤추는 것이 재미있어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새로운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무용수업 자체가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무용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